

## 북한문학에 나타난 6·25동란

김종희\*

1. 전쟁의 개념적 이해와 전쟁 전후소설
2. 북한문학의 논리를 통해본 전쟁의 인식
3. 문학작품에 나타난 북한의 6·25동란
4. 전쟁 시기의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 【요약】

남과 북이 서로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각기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을 전개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 상황 논리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리하여 전쟁 시기의 중군문학, 전쟁 종료 이후의 전후문학, 그리고 양자의 정치 체제가 독자적으로 안정되어 가면서 생산한 분단문학·이산문학·실향문학과 통일시대 지향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판이한 문학적 산출을 집적해 가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조국해방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이념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였던 것이 한국전쟁이고 보면, 그에 대한 문학적 반응과 해석도 각자의 정치적 이념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시는 김일성 항일 무장 투쟁의 테마를 계

---

\*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

승하면서 인민군의 영웅적인 투쟁상을 보여주는 데 집중된다. 아울러 미국과 미군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의용군에 대한 연대감을 과시하는 것이 이 시기 북한 시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민족적 상황과 전쟁의 문제에서부터 김일성의 영도력을 개입시키면서 시작하는 장편 서사시도 많이 창작되었지만, 속도감과 기동성이 있는 전투적 단시들도 많이 나타난다.

전쟁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문학은 이념적 선전선동에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군과 아군이 분명히 구별되는 편가름의 유형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항차 전쟁 시기의 문학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문학은 ‘적(敵我)’이 확연히 구분되는 문학이므로 적에 대해서는 그토록 격렬한 투쟁성을 보여주지만 역으로 사회주의 체제, 그 속에서의 인민들의 노력투쟁, 인민군의 전투적 성과,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양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 전쟁의 개념적 이해와 전쟁·전후소설

한국사의 공식 기록에서 ‘6·25동란’이라고 명명되던 용어 개념은 이제 그 지위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亂)’은 체계적 정통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 쟁투를 말하고, ‘전(戰)’은 그것이 자격이 동등한 양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를 두고 말한다. 그런데 이 용어 개념의 원칙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특히 국제화 시대의 여러 소통구조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전쟁(The Korean War)’이라는 영어식 표기법이 역수입되어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세력을 얻게 되자 어느덧 이 용어가 자연스러운 대체현상을 보이는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어 자체의 사용 사례나 빈도를 따지는 일이 아니고 그 용어 사용 양상의 변화가 연표하는 바 6월 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을 한반도 내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합법적 정치체제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명분을 고수하여 북한 체제를 일시적인 개별 집단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미상불 이 인식의 모양새에 따라, 북한을 그냥 ‘북한’이라고 부를 것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명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판단이 맞물리는 형국이 된다.

오늘날의 북한은 핵무기 문제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벼랑 끝 단판 승부를 연출하는 절체절명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있다. 자기 백성을 굶겨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차치해두고 보면, 북한을 두고 체제의 합법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6·25동란’이나 ‘한국전쟁’이나의 논란은 그 실효성 자체가 일정한 가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터이다. 또한 한 시대에 있어 언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당대 언중이 사용 빈도를 높여 과반을 상회하는 확산 효과를 보이게 되면 언어 자체의 규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국어의 표준말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일과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북한을 우리와 대등한 시대적 사회적 실체를 가진 정치 체제로 보고 6·25동란, 한국전쟁을 논의할 때에 그 논의가 구체적인 현장 적용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6·25동란 기간’이라고 지칭하는 1950년대에서 1953년 사이를 북한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한 동일한 기간의 용어에 대한 의미의 편차를 분명히 전제해 두는 대신에, 서로 다른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지속된 남북한의 서로 다

른 문학 현상들을 그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납득하는 수준에서 살려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곧 6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남북한의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일과 다르지 않다.

기실 ‘휴전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경선’의 기능을 담보한 지 오래고, 국제적십자 헌장에 따라 전쟁 당사자국 사이에서도 안부 소식을 묻는 교신이 가능하고 적군의 부상자를 치료하는 인도주의 정신을 내세우는 것인데도, 남북간에는 가족 간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엽서 한 장 교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에 대해 김운식은, “현실적으로는 휴전선을 국경으로 인정해야 함에 반해, 심층심리 및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양가적 심리 또는 이율배반적 사고 형태라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속에 놓일 때 그 누구도 인격분열증에 걸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볼 것”<sup>1)</sup>이라고 진단했다.

남과 북이 서로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각기의 6월 전쟁에 대한 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을 전개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 상황 논리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리하여 전쟁 시기의 중군문학, 전쟁 종료 이후의 전후문학, 그리고 양자의 정치 체제가 독자적으로 안정되어 가면서 생산한 분단문학·이산문학·신향문학과 통일시대 지향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판이한 문학적 산출을 집적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은 조국해방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이념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였던 것이 한국전쟁<sup>2)</sup>이고 보면, 그에 대한 문학적 반응과 해석도 각자의 정치적 이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하겠다.

1) 김운식, 「6·25 전쟁문학」, 문학과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p.13.

2) 신명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p.7.

전쟁에 대한 문학의 구체적 반응에 있어서도, 남한의 경우에는 전쟁 그 자체의 비인도성과 잔인성, 분단의 고착화 및 실향민 문제 및 그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동, 전후 사회의 비인간적인 환경과 그에 따른 삶의 양식 등<sup>3)</sup>의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작품의 문면을 두루 살펴보면, 전쟁 체험으로 환기된 현실의 문제적 상황은 일상적 질서의 갑작스러운 파열로 폭로되는 낯설고 공포스러운 ‘극한상황’의 세계<sup>4)</sup>로 나타난다. 요컨대 전쟁을 중심 소재로 한 남한의 문학은, 주로 전쟁 그 자체의 성격과 그로 인한 인간사의 상관성을 다루는 데 주된 목표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1960년대 최인훈의 『광장』이 보여준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나 1980년대 이후 전쟁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확보하려 한 김원일의 『불의 제전』 및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을 두고 말하자면 논의의 형태가 달라질 터이지만, 아직 전쟁 상황으로부터 객관적 시간의 거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논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전쟁에 대한 북한문학의 시각은 곧 이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북한문학의 논리를 통해본 전쟁의 인식

남한의 연구자들이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눈은 초기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근래의 작가작품론 각론에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의 산출에 이르고 있다. 북한문학사론이나 북한의 현대문학에 대한 저술들은 대개 6·25동란, 곧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3)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전후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p.224.

4) 이부순, 『한국 전후소설과 전도적 상상력』, 새미, 2005, p.17.

의 해석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북한문학사의 서술 방식에 대한 논평과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를 적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남한에서 전쟁을 다루는 것과는 문학적 유형 자체를 달리하는, 다시 말해 자기 체계의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격으로 치부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북한문학이고 보면, 앞으로는 전쟁을 다루는 양자의 접근 태도 비교 고찰도 필요한 날이 올 것 같다.

북한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미제의 지시에 따라 그 주구들은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괴뢰 ‘국방군’을 동원하여 북반부를 침공”<sup>5)</sup>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민군의 대남 전쟁은 정당한 방위적 기능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미제로부터 남조선 해방해야 할 민족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논리가 구성된다. 북한 사회는 전시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개편되고 1951년 3월 그 이름에서 ‘북’자를 삭제하는 조직명을 갖게 된다. 전쟁 초기 당의 문예정책도 당연히 변화하여 ‘문학의 강력한 투쟁 무기화론’이 대두된다.

이 시기 우리 당문예정책의 기본은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과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준 김일성원수의 말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문학예술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고상한 당적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견지하고 그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영웅적 인민이 요구하는 영웅적 문학예술로 되게 하며,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수준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게 하는 데 있었다.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란 당의 구호는 이 시기 문학예술을 위하여서도 중심적인 구호가 되었다.<sup>6)</sup>

그러나 북한 문예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1950년 9월의 인천상륙

5)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오월, 1989, p.394.

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사회과학출판사, 1959, p.239.

작전 이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작가의 당성과 책임성 문제가 제기 되고, 김일성의 담화를 통하여 작가의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국면을 보이게 되며 이는 곧 투쟁성을 강조하는 실행의 지침으로 발전해간다. 작품 서술의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주의적 요소를 넘어서 북한 체제의 진행 방향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교시함으로써, 이는 전쟁을 다룬 북한문학의 확고한 창작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원썩들의 만행 그대로를 보인다 하여 그것이 곧 예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자연주의적 요소를 숙청함으로써만이 사실주의적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다.<sup>7)</sup>

1986년에 발간된 『조선문학개관』에서는 전쟁 시기 북한의 문학에 대해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단 찬사를 바치면서 그 문학적 성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 시기 문예작품 창작사업이 광범한 대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은 전시 문예운동의 새로운 특징이었으며 우리 문학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였다.<sup>8)</sup>

북한문학사의 이러한 요란한 수사, 곧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언어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북한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종전(終戰)’이 아니라 ‘휴전(休戰)’ 상태로 끝났으며, 북한 문예당국이 호언했던 미제로부터의 남조선 해방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쟁이 북한에서 도발한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미제와 그 주구인 남조선 괴뢰정권’에 의해

7) 앞의 책, p.244.

8)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Ⅱ, 사회과학출판사, 1986, p.142.

시작된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보면, 북한은 그 강력한 침략자를 격퇴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 공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에서부터 말미암은 바, 불리한 현실을 극복하고 거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정신적 승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도착적 자기방어의 논리가 전쟁 시기 북한문학의 창작 현장에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마침내 침략자는 물러갔다. 정의는 승리한 것이다. 그것은 사상의 힘으로 거둔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sup>9)</sup>와 같은 선언이 가능하고, 그것이 연구서의 문면에 기록되어 출간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선언의 수록이 학문적으로라도 가능하기까지 분단 이래 반세기가 소요되었으며, 그 행위 자체가 반공 논리의 시대에 견주어 보면 상진벽해의 변화에 해당한다 하겠다.

### 3. 문학작품에 나타난 북한의 6·25동란

6월 전쟁을 다룬 북한의 문학은 그 분량이 여러 장르에 걸쳐 방대할 뿐 아니라, 전쟁 시기를 지나서도 항일 빨치산 투쟁의 문학적 형상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창작의 소재가 되어 왔다. 전쟁 시기에 문학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중군문학이나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문학의 ‘투쟁’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 성립 도정에 주요한 모범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양의 수단으로서도 유효했다. 여기에서는 전쟁 시기의 북한문학 작품들을 시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자

9)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160.

료의 주된 출처는 『조선문학사』 제11권 (조국해방전쟁 시기)으로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 문학사인 『조선문학사』는 제11권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영웅적 문학예술을 창조함에 대한 방침 제시」에서 그 ‘로선’ 및 ‘령도’에 대한 내용과 그 시기 문학의 ‘발전’ 및 ‘특성’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서술한 다음, 제2장 「시문학」, 제3장 「산문문학」, 제4장 「극 및 영화문학」을 차례로 신고 있다.<sup>10)</sup> 그런가 하면 『조선문학개관』은 제2권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6~1953.7) 문학’이란 항목에서 역시 「시문학」, 「산문문학」, 「극문학, 영화문학」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서술을 순차적으로 실었다.<sup>11)</sup>

시문학에서 『조선문학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전쟁 시기에 10대의 김정일이 직접지어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숭고한 품모를 감명 깊게 형상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1952)과 「축복의 노래」(1953) 등의 작품이다.

어둠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 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 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심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10) 김선려·리근실·정명옥, 『조선문학사』11, 사회과학출판사, 1994.

11) 박종원·류만, 앞의 책, pp.139-175.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락원을 펼치실 아버지 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 「축복의 노래」

김정일의 「조국의 품」이 ‘서정성’이 강한 송가가사라면, 「축복의 땅」은 북한문학사의 표현으로 ‘정론성’이 강한 송가가사이다. ‘포연’이나 ‘준엄한 전선길’이나 ‘미제’가 등장하고 ‘인민’과 ‘나라’와 ‘락원’이 절대적 가치로 상징되면, 거기에 영도자로서 ‘아버지 장군님’의 역할이 불변의 고정성을 표방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시를 김정일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썼다는 것은, 그 탁월한 영명함과 인민의 수범이 되는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다음으로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의 연가’인데, 그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영광찬란한 혁명업적’ 및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칭송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김일성을 두고 ‘한밤에도 쏘는 전설의 태양’(백인준, 「크나큰 그 이름 불러」, 1952)이라고 부르거나, 지난날 머슴살이로 겨우 살아오던 시적 화자가 ‘영광스런 김일성원수님의 전사’가 된 것(박세영, 「수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네」, 1953)을 노래하는 시들은, 김일성의 영도와 전쟁의 승리 및 조국의 미래가 하나의 궤미로 엮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려는 시적 지향성을 가진다.

- 자, 동무들, 말해보오!  
무엇이 괴로운가? 부족한건 무엇인가?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이끌어  
어깨만이 아니라 가슴속까지 두드려주신다  
함께 따라온 군관이 세계를 연신 보며  
가시자고 다음 길 아뢰는데

- 이 동무들 요구를 다 들어줘야지...  
어서 품은 소원들을 말해보라 하신다  
- 「경애하는 수령」

「경애하는 수령」(김우철, 1952)은, ‘후방전선을 돌아보시는 그 바쁘신 길’에도 ‘한 영예군인학교를 찾으시여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시며 크나큰 온정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는’ 김일성의 ‘인민적 품모와 숭고한 덕성’을 노래한, 곧 김일성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 시다. 북한의 문예당국자들도 인민들을 감동시키는 시의 힘이, ‘그 이는 우리의 태양 조선 인민의 수령 김일성 장군’(차덕화, 「수령」, 1952)과 같은 경탄 구호조의 묘사와는 전혀 다른, 소박한 인간미의 표현에서 더 절실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조선문학사』는 특히,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영원한 백두의 메아리’를 창작한, 장편 서사시 「백두산」의 시인 조기천을 하나의 절로 독립시켜 다루면서 그 창작의 내용과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전쟁 시기 시인 「조선은 싸운다」(1951)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격조 높고 노래한 우수한 시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불타는 조선  
싸우는 조선의 이름으로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세계에 부르짖는다  
지구의 인민들을 팔라에 교살하려는  
야수들을 막아 일어서라  
- 「조선은 싸운다」

6월 전쟁을 반제반미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며, 특히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즉각적인 감성적 반응을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조기천의 시에 이어 다루고 있는 것은 ‘중군작가의 전형’인 시인 김람인의 창작과 장편 서사시 「강철청년부대」(1951)이다. 이 시를 두고 ‘시인이 해방 전후에 쓴 수많은 시작품들 가운데서도 사상적 내용으로 보나 예술적 수준으로 보나 가장 품위있는 시인의 대표작’이란 평가가 주어져 있다. 이 작품은 종군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머리시를 대신한 「찬가」와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영예와 긍지도 높이  
부대는 다시 원썩을 소탕하러 나섰다  
최고사령관이 부르는  
새 전선으로

노도같이 진격하는 대오 앞에  
불멸의 위훈을 노래하듯  
찬란한 군기 힘차게 나뭇기고  
인민들은 환희에 넘쳐  
전사들을 바라보았다

태양도 기쁨에 겨워  
눈이 부시도록 빛발을 뿌려주고  
새 움이 돋는 푸른 산 푸른 들을 지나  
강철청년부대의 승리의 새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갔다

- 「강철청년부대」

이 작품을 두고 김일성은, ‘항일유격부대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 장병들의 영웅적 기상을 훌륭히 노래’하였다고 하고, 이

를 ‘중군작가의 전형’이라고 칭찬했다. 이 시는 항일 무장투쟁의 계승과 인민군의 사상적 특질을 강조하면서 그를 통한 전쟁 승리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선과 후방에서 높이 발휘된 대중적 영웅주의에 대한 시적 형상’이나 ‘인민군 전투원들의 상징의 노래’ 등이 각기의 주제만 조금씩 다를 뿐 그 묘사나 서술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한 모습으로 이 시기 북한 시를 보여주고 있고, ‘미제의 침략적 본성에 대한 준렬한 단죄와 규탄의 시형상’과 ‘전투적이며 낭만적인 노래—전시가요’도 주요한 분석 및 평가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전시의 ‘대중적 영웅주의’는 30여년 후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실주체 문학’의 도입과 ‘숨은 영웅’의 창조에 비교해 볼 때, 대중 동원력이 필요한 위기의 시대에 확대된 인민성으로서의 대중성 확보가 과제로 부상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조선문학개관』에 서술된 「시문학」부분은, 그 전체 분량이나 예거 및 분석된 작품의 수에 있어 『조선문학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지만, 그 시기 시문학의 전체적 면모를 작품과 함께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전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 4. 전쟁 시기의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이 글은 전쟁 시기 북한문학의 시문학에 이어, 산문문학과 극영화문학을 함께 고찰해야 전체적인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 당초의 목표는 그러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에서는 시작품에 그치기로 하고 남은 과제는 다음으로 미루어두기로 하겠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북한의 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

항일 무장 투쟁의 테마를 계승하면서 인민군대의 영웅적인 투쟁상을 묘사하는 데 집중된다. 아울러 미국과 미군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의용군에 대한 연대감을 과시하는 것이 이 시기 북한 시의 주요한 특징이다.<sup>12)</sup>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민족적 상황과 전쟁의 문제에서부터 김일성의 영도력을 개입시키면서 시작하는 장편 서사시도 많이 창작되었지만, 속도감과 기동성이 있는 ‘전투적 단시’들도 많이 나타난다.

전쟁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문학은 이념적 선전선동에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군과 아군이 분명히 구별되는 편가름의 유형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항차 전쟁 시기의 문학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문학은 ‘적아(敵我)’가 확연히 구분되는 문학이므로 적에 대해서는 그토록 격렬한 투쟁성을 보여주지만 역으로 사회주의 체제, 그 속에서의 인민들의 노력투쟁, 인민군의 전투적 성과,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양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3)</sup>

북한이 김일성의 언급을 통해서도,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sup>14)</sup>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6월 전쟁이 이른바 ‘새 역사’를 건설하기 위한 결단이요 모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침략자를 격퇴한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쟁은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으며 깊은 상처를 입혔다. 복구는 전쟁 중에도 초미의 과제가 된다. 전쟁 시기는 남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이 겪어야 했던 엄중한 시련

12) 김재홍, 「북한시의 한 고찰」,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p.240.

13)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p.216.

14) 김일성 방송연설 교시,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1950. 6. 26, 김일성 저작집 6권, p.4.

의 시기였다.<sup>15)</sup>

그리고 반세기의 세월이 경과했다. 그동안 남북한은 전쟁 복구의 시기와 두 체제의 독자적 발전 및 분단 상황 심화의 시기를 거쳐, 다시금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았다. ‘한국적 민주주의’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 개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한 체제의 독재성이 다른 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매우 그로테스크한 균형과 견제의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근래 핵무기 문제로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까지 이른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을 터이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용어 개념이 변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규정으로부터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 고뇌하며 풀어야 할 실체적 과제로 전이 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6월 전쟁을 바라보는 사회과학적 시각이나 문학적 시각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인 진행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추정된다. “세(勢)는 시(時)에 따라 변하고, 속(俗)은 세(勢)에 따라 바뀐다”는 옛말을 이 결미에 가져다두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 시기 북한의 시문학도 보다 포괄적인 눈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오월, 1989.

주제어(Key words): 북한문학(North Korean Literature), 한국전쟁(Korean War), 전쟁문학(Literature written during the war), 조국해방(National Emancipation), 김일성(Kim Il-sung), 인민군(North Korean Army), 투쟁성(Belligerence)

15) 신형기·오성호, 앞의 책, p.123.

참고문헌

- 김선려·리근실·정명옥, 『조선문학사』11, 사회과학출판사, 1994.  
김윤식, 「6·25 전쟁문학」,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김재홍, 「북한시의 한 고찰」,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사회과학출판사, 1959.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Ⅱ, 사회과학출판사, 1986.  
신명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 전후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이부순, 『한국 전후소설과 전도적 상상력』, 새미, 2005.

## The Korean War Shown O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Kim, Jong-Hoi

Inferred from the realistic situation, it is certain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different awareness about Korean War and the products of literature during this time respectively. For this reason, South and North Korea shows a huge differentiation in literature in terms of national division, separation, losing one's home country, and national unity orientation, which are all the facts established when enforcing the post-war literature, and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Considering the ideology of Korean War that is also different in South and North Korea South supports democracy whereas North more focuses on national emancipation; it is easily understandable that the ideas and analysis of literature are dependent on each country's political goal. The poetry in North Korea written during Korean War puts an emphasis on the heroic belligerence of North Korean army within the resistance against Japanese power inspired by Kim Il-sung. Along with this fashion, the hatred towards American and American army while showing off the togetherness with Chinese militia is primary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poetry from this period. As far as for its form, militant short poetry is dominant although many epics written in the same period reflect the domestic condition in North Korea, Korean War, and leadership of Kim Il-sung. Whether involved in the war or not, the main goal of North Korean literature is ideological agitation and because of so,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mean to differ from each other in its main ideas. The difference is especially shown in the literature written during the war time. Since North Korean literature clearly distinguishes who is ally and who is enemy, it illustrates a strong belligerence towards their enemy, but at the same time, it implicitly admires the communist party, the trial of North Korean people, the military

achievement, and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 Kim Il-sung.

김종희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karts@hanmail.net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